

한지은 “걸크러시 도전재미...액션 관심 절권도 배우는 중”

카카오TV ‘도시남녀의 사랑법’ 종영 인터뷰

사랑에 뜨거운 여자 ‘오선영’ 역할 맡아

‘멜로가 체질’·‘꼰대인턴’ 등 열일 행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작품이에요. 감사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요.”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에서 사랑에 뜨거운 여자 역할로 변신한 배우 한지은은 “재미있는 도전이었다”며 종영 소감을 밝혔다.

최근 화상으로 만난 한지은은 “대본이 너무 재미있고 독특했고, 공감되는 지점이 많았다. 익숙하지 않은 형식, 새로운 캐릭터로 제겐 도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다”며 “카카오TV와 넷플릭스에서 방영해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작품인 만큼, 방송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복잡한 도시 속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리얼 로맨스를 담았다. 지창욱과 김지원, 김민석과 소주연, 한지은과 류경수 세 커플이 서로 다른 청춘들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특히 인터뷰와 예피소드가 결합된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지은은 “처음에 생소했고, 어렵다고 느껴졌다”며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지 의문투성이였다”고 떠올렸다.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직업이지만,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면서

연기하는 일은 많지 않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연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걱정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재미있게 했어요.”

“오선영과 60% 정도 닮아...걸은 딱딱하지만 속은 어려”

드라마 ‘멜로가 체질’, ‘꼰대인턴’ 등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한지은은 순간의 직감에 따라 연애하는 뜨거운 여자 ‘오선영’ 역할로 분해 걸크러시한 매력을 뽐냈다.

“‘멜로가 체질’ 한주와 ‘꼰대인턴’ 태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도드라지는 캐릭터였는데, 선영이는 두 친구에 비해 강하고 더 도시적인 느낌이죠. 세련되고 걸크러시한 느낌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 해본 캐릭터라서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게는 도전이었죠. 그런데 작가님과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오선영은 걸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속은 어린 인물이라고 했다. “선영이의 말투는 쿨해 보이지만, 막상 하는 행동은 쿨하지 못해요. 사실 누구보다 어린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대사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평소에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속은 어린데 걸은 씩씩하다, 계속 마음속에서 새겼죠.”

한지은은 자신의 모습이 오선영과 60% 정도 닮았다고 했다. “선영이한테 가장 공감했던 건 생각이 많다는 것”이라며 “내성적이고 외로움도 많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다. 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고 씩씩한 척, 독립적인 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영이가 ‘착’하는 건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그 지점이 저랑 닮았다. 저도 흥이나 장난기도 많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생각도 많다. 하지만 걸으로는 의지하거나 걱정 끼치지 않아 더 씩씩하고 외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선영이 연인과 이별할 때 선물했던 옷과 물건을 탈탈 벗겨내는 모습은 다르며 웃었다.

한지은은 “저는 무던하게 지나가는 스타일인데 선영이는 자신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연예스타일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했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잘 느끼고 꾸미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는 한지은은 “마음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연애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작품으로 사랑에 대한 몰입도가 생기기도 했다. “사실 (사랑은)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부분도 있다. 이번 작품에서 6명 캐릭터의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뭐가 더 좋은 사랑이고 나한테 더 맞는 사랑일까 모르겠더라.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싶었던 연애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웃었다.

도전하고픈 장르는 로코·액션...이뤄지는 사랑 해보고파”

한지은은 극 중 달라도 너무 다른 연예 스타일의 ‘강건’ 역의 류경수와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강건의 ‘여사친’들이 불안했던 오선영은 결국 그와 이별했다. 우연히 다시 재회했지만, 결국 또다시 이별을 맞게 된다.

그는 “서로 싫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어긋난 것뿐이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응원해주고 싶은 결말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을 담은 포장마차 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기도 했다.

“선영이와 건이의 마지막이기도 했지만, 실제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대본에는 담담하고 담백하게 돼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영이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죠. 그 장면에서 눈이 내렸는데, 설정이 아니라 진짜 눈이 왔어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시즌제 제작을 밝힌 ‘도시남녀의 사랑법’ 시즌2 관련 이야기를 따로 듣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지은은 “시즌2가 진행된다면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며 “선영이와 건이의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영화 ‘귀로 데뷔한 한지은은 아직 해보지 못한 장르와 역할이 많으며 다양한 도전을 꿈꿨다. 특히 해보고 싶은 장르로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을 꼽았다.



“제가 코믹한 캐릭터는 자주 했는데, 주로 이뤄지지 않는 사랑을 했어요. 이제는 이뤄질 수 있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장르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귀여운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운동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데, 액션에 관심이 많아요.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은 절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지드래곤·제니, 열애설...YG “사생활, 확인 어렵다”

“지드래곤은 제니의 우상”

한류그룹 ‘빅뱅’ 지드래곤(33·권지용)과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25·김제니)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2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제니가 교제 중이다. 현재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소속사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면서 “지드래곤은 제니의 우상”이라고 했다.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제니의 데이트 장소로, 한남동 고급 빌라 단지에 위치한 지드래곤의 자택을 꼽았다. 디스패치는 제니가 자신의 회사 차를 지드래곤의 빌라에 등록해 전용 주차장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한류스타라 열애설만으로도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겁다.

지드래곤은 일본 배우 미즈하라 키코, 배우 이주연 등과 열애설이 제기됐으나 공개연애를 한 적이 없다. 제니는 지난 2019년 예소 멤버 카이와 짧게 공개 연애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의 대표 주자인 빅뱅의 리더로 프로듀싱 능력을 겸비해 팬들이 두텁다. 재작년 10월 전역했고, 현재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제니는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한 블랙핑크 멤버로 패셔니스타로 통한다.

이달의 소녀 추 학폭 폭로자 “과장된 내용...물의 일으켜 죄송”

추 측,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그들 ‘이달의 소녀(이달소) 추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처음 제기한 네티즌 A씨가 자신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사과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달소 추 학폭 폭로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제가 적었던 모든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확장시절 김지우(추의 본명)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기억이 각색되고 변한 것 같다”면서 “처음 글을 쓰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글을 내렸어야 했는데,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다른 모든 글은 삭제하겠다. 물을 일으켜 죄송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에 “추가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을 따돌렸고,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의 소속사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명을 나섰다. A씨가 사과했지만,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촉발된 학폭 의혹 제기가 연예계로 번지면서 폭로전으로 번졌다. 이름이 거명된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낯서른’ 첫 공개 만나질 만에 180만뷰 돌파

웹툰 ‘85년생’ 원작

카카오TV 웹드라마 ‘아직 낯서른’이 첫 공개 후 조회수 180만뷰를 돌파했다. 카카오TV는 “‘아직 낯서른’이 15년 만에 재회한 서로의 첫사랑, 정인선과 강민혁의 심쿵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편지를 날렸다. 23일 오후 5시 공개된 첫회는 만나질만에 벌써 180만뷰를 넘어서며 화제를 낳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웹툰 ‘85년생’을 원작으로 한 ‘아직 낯서른’은 적당한 교묘하고 적당한 톱톡해졌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는 서른 살 세 여자들과 사랑과 그리움 드라마다.

첫 회에서 서른 살의 웹툰작가 서지원(정인선)의 눈 앞에 상상보다 더 짜릿한, 그림 같은 첫사랑과의 만남이 펼쳐졌다.

새롭게 연재할 웹툰의 담당자를 기다리던 서지원 앞에 어린 시절 첫사랑 ‘이승유(강민혁)’가 훌쩍 큰 키에 근사한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등장해, 낮은 목소리로 “처음 뵈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반가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서지원의 표정과 달리, 이승유는 형식적인 웃음 외에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아 서지원을 혼란스럽게 했다.

홀로 설레었던 자신을 타하며 회식에서 빠져나온 서지원은 갑작스레 내리는 비에 난감해하고, 이승유는 거짓말처럼 다가와 또다시 서지원의 마음

을 흔들었다. “보고싶었다, 서지원”이라는 말과 함께 웃으며 눈을 맞추는 그로 인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서지원의 모습은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직 낯서른’은 매회 20분 내외의 총 15화로 제작되며, 매주 화, 토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

릴보이·원슈타인·미란이...‘쇼미9’ 래퍼들, 내달 콘서트

내일 오후 2시 티켓링크·멜론티켓에서 예매

릴보이, 원슈타인, 미란이, 쿤디판다, 먼치맨, 언텔, 가오가이 등 ‘쇼미더머니 9’의 인기 래퍼들이 다음달 27일 콘서트를 연다.

공연기획사 위플레이는 다음달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아레나에서 ‘영보스(YOUNG B.O.S.S) 라이브 인 서울’ 콘서트로 찾아온다고 23일 밝혔다.

위플레이는 “어려운 시국 속 그동안 힘이 되어준 많은 분께 희망

과 위로를 드리고자 3월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지난해 6월 ‘부산 트루트렌트’, 7월 ‘JTN콘서트’, 11월 ‘김경호 전국투어 콘서트’ 등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성황리에 끝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보스 라이브 인 서울’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다음달 27일 오후 3시와 7시 열리며 예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티켓링크와 멜론티켓에서 할 수 있다.